이홍재의 세상만사

새해 아침에 다시 시작하며

논설고문

새해 아침입니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열립니다. 청각과 시각 장애를 극복하고 세상과 소통하게 된 기적의 여인 헬렌켈레가 말했던가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다른 문이 열린다'고요.(When one door shuts, another opens.) 희망을 잃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겠지요.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해현경장'(解弦更張 : 거문고 줄을 고쳐 팽팽하게 맨다는 뜻)이란 말과도 상통하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 한(漢)나라 때 동중서(董仲舒)란 유학자가 무제(武帝)에게 올린 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는 썩은 나무와 똥이 뒤덮인 담장과 같아서 어찌할 도리가 없는 지경입니다.…… 이를 비유하자면 거문고 소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줄을 풀어서 고쳐 매어야(必解而更張之)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줄을 바꿔야 하는데도 바꾸지 않으면 훌륭한 연주가라 하더라도 조화로운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유래하여 '해현경장'은 주로 사회적·정치적 개혁을 의미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됩니다. 올해가 갑오년입니다만은 120년 전 갑오년에 발생한 갑오경장(甲午更張)의 명칭도 여기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열린 문을 향하여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단지 해가 바뀌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옥에서의 사색으로 유명한 신영복 선생의 말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겨울저녁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한 해를 시작하는 새해 첫날의 각오와 설렘이 어찌 다른 날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 많은 소시민들이 이날부터 금연과 다이어트 등을 굳게 다짐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 굳센 맹세가 작심삼일로 그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영광 출신 시인 오세영(1942~)의 '딸에게'란 시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딸을 시집보내는 심정을 표현한 시인데 저도 과년한 딸을 두고 있어서인지 더욱 공감이 됩니다. 먼저 돌아서서 울고 있는 아빠와 대조적으로 딸이 무심히 예복을 고르고 있는 풍경이 묘사됩니다. 시인은 그러나 "붙들려 매어 있는 것 치고/ 썩지 않는 것이란 없단다./ 안간힘 써 뽑히지 않는 무는/ 제자리에서 썩지만/ 스스로 뿌리치고 땅에 떨어지는 열매는/ 언 땅에서도 새싹을 틔우지 않더냐."라고 위안하며 딸을 '막막한 지상'으로 홀로 떠나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위대한 결별이 필요합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열린 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닫힌 문만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열려 있는 문을 보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말로

아 참, 인사가 늦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런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광주일보 독자 여러분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이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여자는 자기를 기쁘게 해 주는 남자를 위해 단장을 한다."(士爲知己用 女爲悅己容)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광주일보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으니 열과 성을 다해 좋은 글로써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해인 수녀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마른 향내 나는/ 갈색 연필을 깎아/ 예리한 칼끝으로 몸을 깎이어도/ 단정하고 꼿꼿한 한 자루의 연필처럼/ 정직하게/ 어둠 속에도 빛나는 말'로 독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물론 그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 '모기의 어깨로 태산을 짊어진 듯' 천근만근 무거움을 느끼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어찌하겠습니까.

새해에는 모두 새로운 꿈을 꿉니다.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것은 새해 아침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특권입니다. 성공하는 꿈, 행복하게 되는 꿈, 부자 되는 꿈, 정상에 오르는 꿈, 좋은 짝을 만나게 되는 꿈, 그리고 백수들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취업의 꿈. 그 모두 좋습니다. 그 꿈이 올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시고요. 아울러 지난 한 해 꽉 막혔던 불통(不通)의 시절을 넘어 올해는 의사가 소통되고 운수대통하고 만사형통하는 통!통!통!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도노조 파업 철회… 국회 철도발전소위 구성

여야정치권과 전격 합의서명

완전 정상화 최소 이틀 소요

檢·警, "수사는 계속 진행"

국토교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한 뒤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태흠, 김무성, 강석호 간사, 주승용 국토교통위 위원장, 민주당 이윤석 간사, 박기춘 의원.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과 철도노조 지도부가 지난 30일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철도노조 파업을 철회키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4인씩 8인으로 소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으며 역대 철도파업 중 최장기인 22일째를 맞은 철도파업이 사실상 해제 수순에 들어갔다.

파업 철회 합의 소식에 시민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관련기사 6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김무성·강석호, 민주당 박기춘·이윤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밤 9시부터 철도노조 지도부와 만나 협상을 벌여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이날 0시께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설치하고,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또 소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위 구성을 의결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각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 이 같은 합의 사실을 보고, 추인을 받았다.

박 사무총장은 "철도노조원 2명이 여의도 당사에 들어와 신변보호와 정치권의 중재를 요청한 뒤 김한길 대표의 지시로 (12월)28일부터 철도노조 측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무성 의원은 "박기춘 의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밤늦게 (철도노조를) 만나 합의문을 만들고, 당 지도부의 허락을 받았다"면서 "구두 합의만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 민노총으로 가서 김명환 노조위원장을 만나 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와대와도 상의했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답했다.

철도노조도 내부적으로 파업 철회를 결정하고 언제부터 파업을 철회하고 일터로 복귀할지 논의에 착수했다.

철도 노조가 이날 파업철회를 결정하더라도 차량 안전운전을 위한 휴식 등을 감안하면 완전 정상화까지는 최소 이틀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비롯한 수사는 변함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소설 박이수 컨테이너 〈광주시 풍암동〉

▲시 배세복 몬드리안의 담요 〈대전시 관저동〉

▲동화 서귀옥 태권브이를 부탁해 〈전북 삼례읍〉

올 국가공무원 4160명 뽑는다

작년比 412명 증가… 2008년 이후 최다

올해 국가공무원 선발규모가 4160명에 달해 20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2014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 계획을 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고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선발규모는 4160명으로 지난해보다 412명 늘어 2008년(4868명) 이후 최대규모가 된다. 최근 육아휴직과 퇴직 등 결원에 따른 신규충원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직급별로는 5급 430명, 7급 730명, 9급 3000명을 각각 뽑는다.

외교관 후보자를 포함한 국가직 5급 공무원은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뒤 지난해보다 한 달여 늦은 3월 8일 1차 시험을 치른다. 이후 2차 시험은 직렬별로 행정직은 7월 1~5일, 기술직은 8월 5~9일, 외교관후보자는 5월 15~16일 치른다.

5급 공무원은 일반행정 142명(올해 120명), 재경 81명(올해 75명), 교육 8명(올해 3명) 등을 선발한다. 지자체로 배치되는 5급 지역구분모집은 지난해 대비 15명 늘어난 50명을 선발한다.

7급 공무원은 내년 7월 26일, 9급 공무원은 4월 19일 각각 필기시험을 치른다. 7·9급 공무원은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등 일선기관을 중심으로 충원수요가 급증하면서 선발인원이 크게 늘었다. 세무7급은 150명(지난해 86명), 세무9급은 850명(〃 625명), 관세9급은 225명(〃 117명), 통계9급은 63명(〃 23명)을 각각 뽑는다.

장애인은 7·9급 합해 225명(〃 186명)을, 저소득층은 9급 80명(〃 62명)을 각각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국가공무원 공채 임용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합격자 제도가 도입되며 9급 공채 필기시험은 합격자 발표 전 가채점 성적을 사전 공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